



뒤섞이고 합쳐지며 공생하는 이 땅의 이야기

제5회 제주비엔날레 개막

11월 15일까지 83일 여정
도립미술관 등 5개 전시장
유배·신화·돌 문화 키워드
북방 문화·제주 연결 탐색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떠오르는 집 한 채와 나무 조형이 입구에 세워졌다. 24일 오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를 미리 보는 전시 투어는 그 집 안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주시 원도심 관덕정 광장에서는 83일간의 전시 여정에 나서며 소통 전문가 김창옥, 소리꾼 이희문 등 홍보 대사들이 함께한 개막식이 열렸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도립미술관이 주관하는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가 이달 25일 개막해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장은 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레미콘 5곳이다.

주제는 '허끄곡 모닥치국 이야기: 변용의 기술'. 참여 작가는 20개국 69팀(명)이다. 2024년 제4회 제주비엔날레가 섬이라는 환경에서 표류를 매개로 남방 문화와의 연결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유배·신화·돌 문화를 통해 제주와 북방 문화의 융합을 짚는다.

도립미술관에서는 추사의 제주 유배를 출발점으로 삼아 동시대의 '세한'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 상황을 저마다의 예술 언어로 풀어낸다. 추사의 '세한도' 영인본, 소암 현중



① 뽕상 모리세·캐롤라인 로버트의 '테라(TERRA)'.
② 인스피어의 '제주 기메, 신들의 자리'.
③ 24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제주비엔날레 전시 투어가 진행되고 있다.
④ 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입구. 추사의 '세한도' 공간으로 꾸몄다.
⑤ 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를 채운 이진경의 '나는 그 초록인가'.
전선희기자

화의 '취시선'에서 시작해 오석훈의 대형 수묵 '한라영곡', 조기섭의 '걷는 풍경: 7계', 이현태의 오디오 비주얼 설치 '어 김없 는 것과 어긋나 는(거)', 강요배의 냄새 나는 그림 '도새기 통사' 등과 마주하게 된다.

이진경은 글과 그림, 오브제 설치, 사운드 등으로 시민갤러리 전체를 '나는 그 초록인가'로 채웠다. 세한도의 그것처럼, 척박한 환경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엄연히 존재해 온 초록을 말한다. 미술관 로비에는 연미의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햇살이 비추면 햇살을 받고', 중앙

정원엔 김수현의 '꿈꾸는 섬'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오백장군갤러리에는 제주 현무암에 쌓인 시간과 기억을 다룬 신작들이 나온다. 24개의 물레 위에 돌을 올린 김현성의 '담지체', 제주·훗카이도·히로시마를 하나의 기억으로 잇는 일본 오카베 마사오와 미나토 치히로의 설치 '타임링스(TIME RINGS)' 등이다.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레미콘 등 원도심에서는 관객 참여형 전시를 준비했다. 제주아트플랫폼 3층 공연장에 가면 캐나다의 뽕상 모리세와 캐롤라인 로

버트의 대형 작품 '테라(TERRA)'를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자나 카디로바는 5층 영화관을 활용해 기존 시리즈를 제주에 맞게 변한 '퍼포먼스(Performance) VI'를 선보인다. 예술공간 이아엔 인스피어의 '제주 기메, 신들의 자리' 등이 놓인다.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은 이종후 도립미술관장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제주에서 뒤섞이고 합쳐지며 만들어진 변용의 기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입장권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비엔날레 누리집 참고. 전선희기자



황학주의 시 詩 읽는 화요일 (131)

미지의 빛

하재연

두꺼운 막이 열리자마자
죽어버리고 마는 역할을 연기해야 했기에

사후적으로 사랑하고
사후적으로 후회하고
사후적으로 삶을 느끼는

늙은 배우처럼

조명의 바깥에서 당신은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 동공에서 죽음같이 흘러내리는 빛을
종막 이후 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섭화=배수연

늙은 배우가 '사후적으로 산다'는 느낌을 주는 건 막이 열리자마자 죽어버리는 역할이기 때문이지만, 약간 비껴서서 인간적 관심을 드러내는 하재연의 문법 때문이기도 하다. "사후적으로"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되는 구조는 삶이 실시간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박자 늦게, 혹은 이미 완료된 뒤에야 의미로 도착한다는 의구심을 짚게 담고 있다. 짧은 시 한 편의 공간에서 '조명의 바깥'은 결코 작지도 적지도 않으며, '종막 이후'에도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발견'에 접속되어 미래의 말미를 현실 속으로 당겨오지만, 대부분 늙음은 늙음만을 생각하므로 무대 위로 던져진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다. 시인은 자신을 늙은 배우로, 무대 조명 밖에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서 있는 이미지로 설정한 뒤 종막 이후에야 흘러내리는 빛을 본다.

<시인>

북촌의 일상 노래가 되고 춤이 되어

국악연희단하나아트 기획 29일까지 '안녕, 북촌' 축제

백년 된 폭낭(뽕나무)이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곳. 제주시 조천읍의 그 마을에서 예술가와 주민이 만난다. (사)국악연희단하나아트가 '2026년 제주 마을문화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펼치는 '안녕, 북촌: 스테이 워크(Stay Week)'다. 일정은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여름 농사를 마무리하고 가을로 향하는 음력 7월 절기인 백중에 맞춰 북촌 포구에 마련한 야외 무대를 중심으로 저녁마다 빛깔 다른 공연을 선보인다. 북촌 해녀들의 물질

과 생명력을 담아 2021년부터 이어온 공연인 '뒷개할망 춤추다' (24~25일 오후 8시 북촌 포구)를 시작으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한사동에서 해동까지 구석구석을 누비는 '백중맞이 마을길놀이' (26일 오후 5시), 마을 거주 예술가와 동호회가 꾸미는 '오픈스테이지' (27일 오후 8시 북촌 포구), 마을이 겪은 슬픔과 기쁨을 묵묵히 지켜봤을 폭낭의 사연을 그린 창작극 '북촌-큰

나무의 기억' (28~29일 오후 8시 북촌 포구)이 잇따른다. 이들 공연엔 북촌리 해녀, 마을 합창단, 밴드, 풍물패 등 주민 80여 명이 배우이자 연주자로 참여한다.

축제 기간 마을 안을 찬찬히 걸어 보는 '안녕, 북촌 스탬프투어'를 이어 간다. 북촌리 부녀회 마을식당, 찾아가는 사진관, 마을 기록 사진전 등 부대 프로그램도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취득

미국 MIT공과대학교 전기전자공학 박사

이 은 석(KAIST 졸)
(배우자: 김소연 미국 하버드대 졸)
부: 이창윤 · 모: 양희선

미국 MIT공과대학교 전기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영예롭게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모가족 일동

이화봉 이화신 이화자 이화숙
이양근 김순종 김창호 이일수

취득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박사 학위

한 정 민
(부: 한기수 · 모: 이안자)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박사 학위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미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 · 구독 750-2314 · 서귀지사 732-5552